

美 고용 식어도 韓 물가 압력… 신현송 금리 섣범에 ‘이목’

한은, 오는 22일 금통위 예정
9월 물가상승률 2.9%, 목표 웃돌아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3% 예상
금통위 핵심은 근원품목 오름세와
기존 인상 수요·물가 반영 정도

미국의 신규고용 증가 폭이 줄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가상승률이 2.9%로 낮아졌어도 통신비 기저효과 소멸을 감안하면 오름세는 오히려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국내 물가 압력의 지속성과 이미 단행한 금리 인상의 파급효과가 핵심 판단 재료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로 8월의 3.1%보다 낮아졌다.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도 3.4%에서 2.8%로 내려왔다. 다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여전히 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뉴시스

돈다.

◆美 신규고용 둔화

미 노동통계국(BLS)이 지난 2일(현지 시간) 발표한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2만9000명 늘었다. 수정된 8월 증가 폭 13만3000명보다 작고, 7~8월 수치도 종전 발표보다 6만명 하향 수정됐다.

실업률은 4.2%로, BLS는 고용과 실업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물가 부담도 남아 있다. 8월 개인소비지출(PCI)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4%였다. 연준은 9월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0.25%포인트(p) 올려 3.75~4.00%로 조정했다. 고용 증가 폭 축소만으로 추가 긴축(금리인상) 중단을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연준의 금리 경로는 환율 등을 통해 국내 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연준 정책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국내 경제 여건에 맞춰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금통위도 22일 열려 미국 현지 시간 27~2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보다 앞선다.

◆물가 2.9%, 기저효과 이후를 본다

국내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지난해 통신비 감면의 영향이 섞여 있다.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휴대전화 요금 감면으로 비

교 기준이 낮아지면서 올해 8월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한은이 설명한 기저효과는 전체 물가 0.6%p, 근원물가 0.8%p였다. 이 효과가 9월에 사라졌다.

기저효과의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단순히 계산하면 8월 전체 물가상승률은 2.5%(3.1%에서 0.6%p 제외)로 9월의 2.9%보다 낮다. 전체 상승률 하락을 곧바로 물가 압력 완화로 읽기 어려운 이유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2일 물가 상황점검회의에서 “8월의 일시적인 기저효과가 소멸한 점을 고려하면 물가 오름세는 다소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은은 항공료·여행비 등 개인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갔고,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은 전자제품 등 내구재 가격의 오름폭도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근원 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 내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그간 높아진 비용이 상품·서비스 가격에 계속

반영되고, 소득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 회복으로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도 커질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와 환율,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물가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선행한 긴축의 효과도 확인해야 한다. 한은은 7·8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 올려 3.00%로 높였다. 한은은 9월 보고서 설명회에서도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차가 있어 효과가 단기간에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0월 금통위가 확인할 핵심은 근원 품목의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는지, 기존 인상이 수요와 물가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다.

한은은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취약차주 대출 ‘돌려막기’ 상환부담 커진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금리 14% 수준
차주들, 대환대출 사용 ‘만기 연장’
연체율 상승 등 카드사 부담도 증가

대환대출·리볼빙 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저신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환대출과 리볼빙 금리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과 카드사의 자산건전성 부담이 모두 확대되는 모습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 대환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695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조3817억원 대비 22.7% 증가한 수준이다. 대환대출은 카드를론을 제때 갚지 못해 카드사에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한다.

같은 기간 리볼빙 잔액은 6조7201억원에서 6조9994억원으로 4.2% 증가했다. 올해 들어 최고치로, 7조원에 육박한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을 다음 달로 이월해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문제는 취약차주의 금리 부담이다. 주요 카드사 대환대출 이자율은 최저 4~

5%, 최고 연 19.9% 수준에서 형성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15~18% 수준의 금리가 많이 적용된다. 지난달 카드론 평균 금리가 14.10%였던 것을 감안하면 차주들이 대환대출을 사용해 상환 부담을 낮추기보다는 단순 만기 연장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셈이다.

리볼빙의 경우 국내 전업 카드사 9곳의 평균 금리는 지난해 말 17.31%에서 지난달 말 17.32%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그러나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의 평균 금리는 같은 기간 18.92%에서 19.03%로 오르며 19%대를 넘어섰다.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71%포인트(p) 높다.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들어 늘어난 카드대출의 절반 이상이 신용평점 하위 20% 차주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취약차주뿐만이 아니다.

카드사의 연체율은 지난 2024년 2.07%

에서 2025년 1.92%, 올해 상반기 1.83%까지 하락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연체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 이는 연체액 자체 감소보다 카드사가 부실채권 매·상각을 확대한 데 따른 영향이다.

실제 같은 기간 카드사의 부실채권 매·상각액은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에는 한 해 동안 약 1조원의 부실채권을 매·상각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원 규모를 매·상각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금융안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향후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로 카드대출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경우 카드사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주된 수익원인 신용판매 부문에서는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지고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늘려온 카드대출의 경우 부실위험 증대로 대손비용 등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카드사 수익 기반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안채선 기자 wotjs4187@

BNK부산은행 지역작가 작품 전시

BNK부산은행이 10월 한 달간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연이어 전시한다.

BNK부산은행은 신창동 ‘BNK부산은행갤러리’에서 수목화와 사진, 서양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를 잇달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7일까지는 최석봉 작가의 수목화 개인전 ‘부산연가파’가 열린다. 수목담채의 정교한 먹선과 은은한 채색을 통해 부산의 근대 건축물과 항구, 도심 마을 등 익숙한 지역의 풍경을 담아냈다.

8일부터 19일까지는 손대광 사진 작가의 개인전 ‘남은 시간의 리듬’이 이어진다. 사교댄스 교습소를 배경으로 노년의 일상과 몸짓을 다큐멘터리 사진에 담았다.

/안송진 기자



한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왼쪽 네 번째), 박찬대 인천광역시장(다섯 번째) 등 주요 내외빈들이 지난 2일 청라 헤드쿼터 앞 글로벌빌딩에서 하나금융그룹 청라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열쇠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15년 만에 ‘청라 금융타운’ 완성

‘헤드쿼터’ 오픈 행사 열어

하나금융그룹이 인천 청라 헤드쿼터의 문을 열고 15년에 걸친 ‘하나금융타운’ 조성을 마무리했다. 그룹 주요 관계사와 금융·IT 인력을 청라에 집결시켜 관계사 간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과 지역 금융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일 청라 헤드쿼터 오픈 행사를 열고 하나금융타운의 완성을 공식 선포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012년부터 인천 청라 국제도시에서 하나금융타운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한 데 이어 2019년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개소했고, 올해 청라 헤드쿼터까지 문을 열면서 15년에 걸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라 헤드쿼터는 지하 7층~지상 15층, 연면적 약 12만8000㎡ 규모다. 지난달부터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한 주요 10개 관계사 임직원 약 2200명이 순차적으로 이전하고 있다.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근무 인력까지 포함하면 향후 청라 하나금융타운에는 약 4000명의 금융·IT 인력이 근무하게 된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그룹의 새로운 구심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주요 금융 관계사의 사업 역량과 통합데이터센터의 IT 인프라를 한곳에 모아 금융

협업과 IT·데이터·디지털 조직 간 협업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AI 전환(AX)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과 금융·기술 융합 서비스 발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무공간 역시 관계사와 부서 간 경계를 허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업무 층별로 전용면적 약 1100평의 수평 공간을 조성하고, 3~7층과 10~14층을 연결하는 내부 계단을 설치했다. 부서와 본부, 관계사별로 분리됐던 기존 사무공간의 한계를 넘어 임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디지털 업무환경도 강화했다. 5G 무선 환경과 클라우드 PC(VDI), 노트북, 메신저, 스마트폰 등을 도입해 특정 좌석이나 유선망에 얽매이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앱과 웹을 통해 좌석과 회의실뿐 아니라 스포츠 마사지, 캡슐룸, 피트니스센터 등 복지시설까지 예약할 수 있는 스마트 건물 이용 시스템도 구축했다.

하나금융은 청라 헤드쿼터를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으로도 활용한다. 건물 상층부에는 스카이프크와 글라스데크를 조성하고 건물 전체를 관통하는 램프 계단을 설치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청라를 거점으로 청년·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AI·바이오·문화·에너지 등 인천의 미래 산업과 금융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은행, 최고금리 9% ‘다함께 적금2’

12개월 만기, 월 최대납입 30만원

우리은행이 최고 연 9%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특판한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그룹의 대표 금융 축제 ‘2026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의 개막을 맞아 최고 연 9.0%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를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2’는 12개월 만기의 비대면 전용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우리WON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월 최대 납입금액은 30만원이다.

이번 상품은 지난해 특판한 ‘우리금융 다함께 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그룹 계열사 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받

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에 우리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이용 중인 고객까지 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기본금리는 연 3.5%로 설정했으며 ▲우리카드와 동양생명·ABL생명, 우리투자증권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연 2.0%포인트(p)의 우대금리 ▲우리WON모바일·삼성웰넷·머니투데이문 이용 시 최대 연 0.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신규고객의 경우 3.0%p의 신규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규 고객뿐 아니라 우리은행과 그룹 계열사를 이미 이용 중인 고객까지 금리 우대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 asj1231@